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성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정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신문 ● FAX: (031)470-3116



대앵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75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4월 26일(음력 3월 29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29

# 부처님의 광명이 온누리를 비춘다!

### 삶이 고(苦)가 아닌 이유

**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왕립하심이 고통에 헤매이는 중생들에게 환창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엄연히 끊임없는 생노병사가 있기에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은 고통의 굴레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님, 불남의 따사로움처럼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삶이 고가 아닌 희망임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일러주십시오.

**답** 고가 아니라는 것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가 불을 자리가 없어요.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는데,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데 무슨 거기에 고가 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갈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없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생활을 하는 데 참나참나 화해서 자꾸 이것 보면 이것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고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고가 있는 거지 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보도 없고요.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팔자가 있어서, 운명이 있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 할 때 고는 없습니다.

그 '없습니다' 하는 건, 얼른 쉽게 말해서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생각을 잘못해서 고라는 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되고 잘못된 것



그림 · 최주현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안다면 걸림 없이 들고 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이 몸을 받고 나왔다면 내 나무는 내 뿌리부터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 뿌리를 의존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뿌리라고도 하고 자이라고도 하고 자불(自佛)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있지만 근본은 누구나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 탄생과 더불어 일체제불의 마음도 직결돼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고가 없다고 한 말이 어떠한 뜻인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이 고정된 게 있는가 하고요. 듣는 것도 고정되게 들지 못하고 만났든 고정되지 않고 또는 움직여가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무면서 참나참나 돌아가는데,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한생각에 참나 전으로 돌아가고 참나 후로 돌아가고 현실에 공해서 돌아가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한 게 따로 있습니까? 함이 없이 여러분은 여여하게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그렇게 되질 못해서 그게 콧비가 안되죠. 정신계와 물질계가 틀어지게 콧비가 돼서 여여하게 이끌어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네 마음부터 달라. 본래 네 마음은 부처니라. 부처의 근본은 내가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이 없다면 무효고 또 육신은, 정신계를 무효로 본다면 물질계는 정신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다." 하셨습니다.

우리 공기주머니 안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이렇게 하면 벌써 몸뚱이부터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지 말고 제가 없다는 거부터 생각하세요. 제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제가 없으니까 이 마음 저 마음 막 그냥 쓰잖아요.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보는 거 들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거, 모두가 공했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여기 올라올 때 도 발자국 짙어지고 오지 않았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죠? 한 발짝 들어 놓으니깐 그 앞서 걸어온 발자국은 다 없어졌잖아요. 과거로.

그러니 지금 현실에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이

겁니다.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생각을 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고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끄달리면 그 팔자나 운명이 주어지는 거죠. 팔자도 없고 운명도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내가 쉬지 않고 삶은 고가 없다고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 앞으로 넘어 죽도록, 또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다 해도 이 도리를 가르쳐준다면 보배를 넘겨준 것과 같은 이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너무나도 전자에 이끌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로 해서 자기네를 보다가드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얼른 쉽게 말하자면, 원자라고 비유한다면 원자에서는 입자가 나가서 다 조절하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처리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처리해서 들고 갑니다. 제각기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니깐 그걸 부러먹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자기, 위대한 자기지만 친근하게 앉아서 '너만이 지켜 주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틀어 아니게 해라 이 소리예요. 모두 자기네들의 전자에 살던 조상이, 과거의 그 조상이 자기 모습을 또 형성시키기 위해서 전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를 이렇게 형성 시켜서 이끌어 가는 거니까요.

### 관하면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문** 스님께서 일러 주신 마음 도리를 나름대로 실천하며 간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와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니 큰 불안감이 들고 앞날에 대한 걱정까지 겹쳐서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하는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이 중생에게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답** 부처님의 광명이 온 누리를 비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광명도, 광력, 전력, 자력, 풍신력 그 재료가 여러분한테 다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바탕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것

은 병이 아니라 공부하라는 재료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아이구, 내가 이 어지러움증이 생겼으니가 가서 보약이라도 지어먹고 이력해야겠다.' 그리고 바깥으로 떠도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으로 '허허, 이 공장이 많은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무슨 무슨 나라라고 그러지만 이 몸 안에서는, 이 몸 안에 있는 중생들은 전부 그걸 세계라고 합니다. 아, 나라가 좀 많습니까? 위나라 대장나라 소장나라 식도나라 이장나라 간장나라 방광나라 콩팥나라,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데 합쳐서 지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내면이나 외부, 유생 무생, 무(無)의 법, 유풀의 법 모두 그 한마음으로 된 것이 헤어질 수 없습니다. 사생이 전자만별이니까 말합니다.

주인공(主人翁)이라는 게 한마음으로 된 하나의 기둥이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의 개별적인 주인공으로만 알지 마시고 그 생각을 넓게 해서 포괄적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한마음의 주인공만이 모든 이 안의 모든 공장들을, 나라들을 지배하니까 내가 생각이 이렇게 난다면 그 생각하기 이전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법신들이 거기서 전부 통신을 합니다. 이것이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되지만 불가에서는 누진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판단력과 들이고 내는 작업과 통신력, 이것을 누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3미터 안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보신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아하, 내가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어떡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로구나. 아이구,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로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하는 동안에 바로 그 어지러움증을 없어질 겁니다. 왜? 속지 않으니까! 그냥 바둑바둑하고 속아서 애쓰면 재미있거든요. 무서워서 발발발발 기는 놈은 더 무섭죠. 왜, 그러니 그거를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멍멍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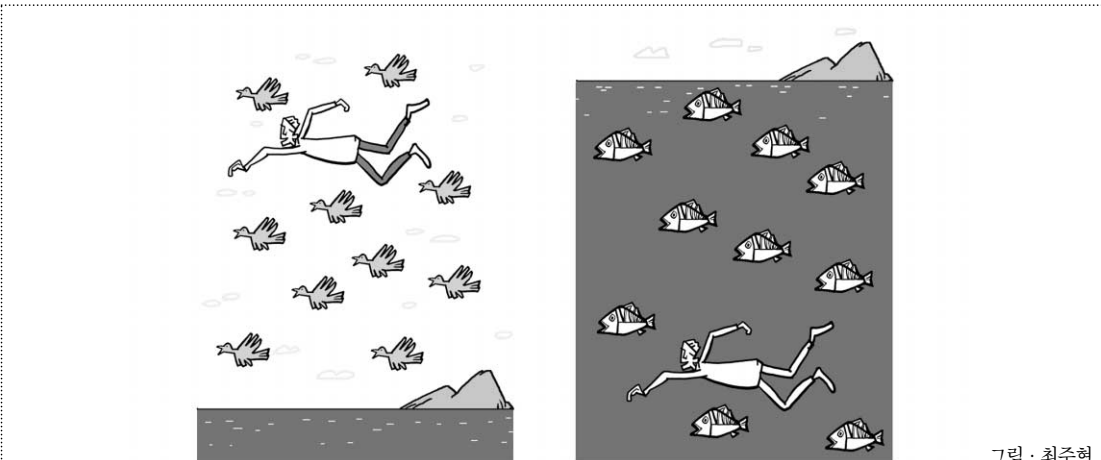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마음에서 모두 창조하나요?

**문** 스님께서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심성과학 아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마음에서 창조를 하는 겁니까?

**답** 그렇죠.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이것은 허공이 안되니까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도 보고, 동시에 보고 듣고 말하고 몸을 움직여 리고 이러죠. 근데 그 마음이 말합니다. 자유스럽게 살라고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자유롭게 했는데 불구하고 자유롭게 생각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마음 빼놓고 뭐가 있을까요?

상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중세계, 하세계 이렇게 삼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차원이 낮아지고 차원이 아주 저 밑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모습도 그렇게 나오죠.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각자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누가 그거를 말해 주기 이전에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대신 짚을 자 주고, 누가 대신 먹어 주고, 누가 대신 풍을 뉘 주고, 누가 아파 주고, 누가 죽어 주고, 누가 깨달게 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있다고 얘기했죠? 그건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 한 발 떼어놓으면

### 한 발 없어지는데

### 무슨 거기에 고가 붙을

### 자리가 있겠는가

살면서 항상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도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같이 먹었죠.

그래서 먹으면 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체들은 내게 또 작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서 하지 에누리라 없습니다. '내가 주변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건전하고, 즉 말하자면 동글게 좀 밝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입력이 된 거니까 그대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난 이것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요것은 할 수 있는데 요것은 할 수 없다.' 이런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마음도 말도 생각도 자유스럽게 했는데, 고등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쓰라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걸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가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내 이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자기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진짜 너만이 이 몸이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너만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고, 아프면 의사도 돼 줄 수 있다'라고 관하라는 것은 오직 자기 이 몸이 씌어 라면 자기 뿌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 인간하고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꽃하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를 건지는 데는 내가 소가 돼야, 내가 소 속으로 들어가길 줄 알아야 소를 건질 수 있다고요. 그런 무슨 소리냐 하면

30면으로 계속

#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 29면에서 계속

‘소로 태어났으니 소의 고기는 사람들이 먹어서 약으로 쓰고, 소의 영혼은 견져서 인간으로 형성시킨다’ 이거죠. 가지각색으로 천차만별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고 한꺼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차차 하나씩 알아 갈 수도도록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 누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같아

**문** 스님, 다른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과 나쁜 에너지를 갖다 계속해서 내뿜으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계속되거나 몸도 좀 아프고 계속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답** 그것은 사람의 사랑이예요. 사랑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영령이라는, 체가 없는 내 마음은 이 허공과 같아서, 즉 말하자면 그쪽의 마음내는 것도 영이고 내 마음 가진 것도 영이예요. 영에다 영을 넣으면 뭘이 되나요? 수많은 영을 영에다 집어넣어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떠한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정신력을 빼앗아 간다 해도 그건 못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 자기의 주체가 완전히 있다면 절대로 빼앗아 가고 빼앗아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물질이라면 되는데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형상이 없는 나한테, 모든 것을 공에다가, 즉 말하자면 공심에다가 모든 것을 놓고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한다면 그게 그대로 무효가 돼 버려요. 그건 자기가 생각에 그렇게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본다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 주세요!

**문** 보통 절에 가면 절을 하라, 주력을 하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스님께서는 근본이 있으니까 근본에다가 모든 걸 툭탁 놓고 믿고 거기 다 연결됐다고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들어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하는 거하고요, 앉아서 참선하는 거 하고요, 그런 거를 갖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답** 우정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알아 있고 싶고 그럴 땐 알아 있고, 서서 어디 가야겠다 그러면 서서 가고, 잠자고

싶다 그러면 잠자고, 그렇게 그냥 툭 누고 싶다 그러면 툭 누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살의 근본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행복하게 살아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누가 먹여 주고 살아 주는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주는 것도 없고, 또는 대신 아파 주는 것도 없고, 대신 죽여 주는 것도 없어요. 단, 내 힘으로써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나가는 게 법이예요, 그냥. 그게 공법이예요.

이 사람 몸 하나에 모든 모습과 생명 의식들이 하나 잔뜩 들어 있어요. 잔뜩 들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인공!’ 하면 자기 뿌리를 말할 수도 있고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장! 너만이 이 배를 다 끌고 다닐 수 있어. 너만이 지켜 줄 수 있어. 너만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아픈데 의사가 돼

기가 있는 줄 안다면 어려워질 수 있고,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일체만법을 들고 내 데 손색이 없고 결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는 자유자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것은 참 고통을 받고 정말 즐길 수 있고 영원한 그 자유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 약하게 마음이 나갈 때

**문** 저는 일이 잘 안됐든지 할 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참 많이 생기고 남이 저를 괴롭힐 때 그 상대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기를 바라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좀 작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한테 차를 잘 끌고 다니게 하고 위로는 기쁨이

## 항상 생각을 둥글고 밝게 하세요

### 그렇게 입력을 하면 그대로 나오니까요

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거기다가, 뭐든 거기서 다 나와요. 이것은 실천이면서도 진리고 진리이면서도 삶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자체예요.

그런데 참선은 이렇게 한다.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뭐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그거를 방편으로 쓰는 것뿐이지 그렇게만 배워서 그것만 해야 한다면 자기를 깨치기는 몇 백 년 가도 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치고 못 깨치는 건 마음 한 번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관하면 어디를 통하느냐. 대뇌를 통하고 사대로 통하고, 그래서 이걸 심성의 학도 되고 심성과학도 되고 심성천체물리학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들어가면 벌써 사대로 통신이 되고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입력이 되면 입력된 대로 나오게 돼 있고, 전자에 입력된 건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자에 약하게 사람을 죽였으니깐 이 입이, 죄가 많겠지.’ 하는 것도 이 요령에 달려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나올 때 바로 그것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할 때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내가 입력한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입력한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불성 자체 근본만 있는 줄 안다면, 정신계의 자

떨어지지 않도록 기쁨을 잘 넣어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평소엔 관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를 끌고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부숩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운전수요, 또 기쁨을 떨어뜨리지 않고 넣어 가지고 다녀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바로 운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아주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틀이 아닌데 이 생명의 근본도 틀이 아니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틀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말겨 보세요. 그리고 증오심을 버리시고요. 그런 것도 거기다 말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시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으로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를 잘못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또 질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모든 것은 당신만이, 의함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말졌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 불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맥의 마음과 아주 또 맞아져서 나중엔 사교를 하고 더 절친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이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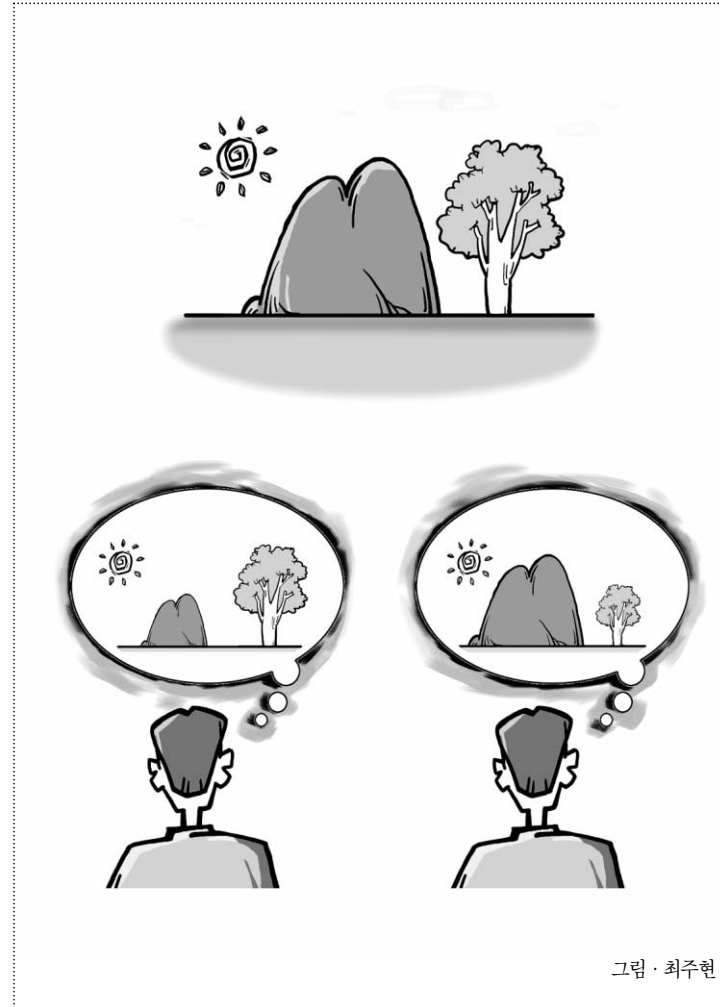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 5월 1일 BBS 불교방송이 바뀝니다

- 1. 포교프로그램 주요 시간대 배치 ⇨ **방송의 중심엔 불교**
- 2. 음악과 함께하는 스님의 법문 ⇨ **편안한 방송**
- 3. 건강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 ⇨ **주 5일제 맞춤형 방송**
- 4. 시사프로그램의 현장화 ⇨ **아침저녁, 일선기자가 기획·제작·출연**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 94.5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